

# 말 그대로 법, 움직임 그대로 덕이어서 '왕위의 왕'



## 33 객지로 떠난 부도를 그리는 법천사지

“바깥 날씨가 어떠한가?”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한마디도 없이 적멸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계승도 사후(死後)의 일을 담 부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고려 문종 21년(1067) 10월 23일, 당대의 큰 스승 지광국사(智光國師 984-1067)는 그렇게 조용히 가늘비 속으로 떠났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대로 법 문입니다. “한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도 많고 낙엽이 지듯 그렇게 조용히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로 법문일 뿐입니다. 임종계를 남기고 제자들에게 사후의 일을 부탁하는 친절함도 법문이고 바깥 날씨가 아니라 보고 가버리는 죽음도 법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부런면 법천리에 있는 법천사지를 찾아 갑니다. 지광국사가 출가한 곳이고 이슬비 오는 가을밤에 이승 인연을 마친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가람이었을 그곳이 지금은 빈터입니다. 몇 채의 능가 바 봉사 준비에 바쁘고 땅에서는 파릇파릇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몸통이 텅 빈 아름다움 느티나무도 가지마다 새순을 튀우고 있습니다. 사지밭갈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저기 금 줄이 쳐 있고 석재들도 모아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을 전체가 절이었을 너른 바탕의 사지. 그 북쪽 산비탈에는 건물터들이 반듯하게 정돈됐는데 전체 사역에 비해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리된 건물터 뒤로 우뚝 솟아 있는 하나의 비석이 마을을 들어서면서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지광국사현묘탑비(국보 제59호)입니다. 금 줄이 쳐진 능선을 따라 100m 줄 올라가니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탑비가 서 있고 그 뒤와 옆은 높은 단을 이룬 건물자리. 그 앞은 광배와 탑 등으로 쓰였던 석재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현존 탑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으로 꼽히는 지광국사현묘탑비. 그 앞에 서니 눈을 부릅 뜬 용이 “뭐 하는 놈이냐?”고 호통을 치는 듯합니다.



거북의 몸이 용의 머리를 한 귀부는 매우 선명한 조각이어서 살아 있는 듯합니다. 고달사에서 만난 귀부가 빗들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짊어지고 있었다면 법천사지의 귀부는 빗물과 이슬을 고스란히 떠받친 채 천년 세월의 무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등에 새겨진 육각의 무늬마다 왕(王)자를 새기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왕권국가에서 누구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글자를 등 가득 새기고 있으니 지광국사의 법력이 당대에 얼마나 크게 떨쳤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빗물의 정교한 글씨와 편액을 장식한 비천상과 해와 달 등 다양한 문양, 그 속을 노니는 봉황의 자태는 깨달은 사람의 생애를 더욱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문은 고려 문종 때의 명신 정유산이 지었고 글씨는 안민후가 구양 수체를 따라 차분하고 정려하게 썼으며 글씨 길은 이영보와 장자춘이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해당분야에 당대 최고로 꼽힌 거장들이었습니다. 빗물의 측면은 아주 선명하게 운 룡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몸을 뒤돌면서 치솟는 용의 기상이 정밀하고 힘찼습니다.

이수의 화려함도 문자로 표현하기가 난감할 지경입니다. 촘촘한 연꽃잎이 떠받치고 있는 이수의 전체를 영기문처럼 묘사된 구름이 뒤덮고 있고 그 속에 여의주를 다루듯 품를 거리는 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수는 용의 몸통을 두드러지게 하고 장식 삼아 구름을 새기지만 이 탑비는 구름과 용의 움직임을 차별 없이 묘사하며 화려함을 더한 것입니다. 보주도 잘 보존되어 있어 하늘로 치솟는 탑의 정점이 맑습니다. 탑의 높이는 4.55m에 달합니다.



경북궁 뜰에서 객지생활을 하는 지광국사현묘탑. 제자리로 돌아갈 날은 과연 오는 것인가.

탑비 앞에 서면 누구나 ‘도대체 어떤 스님이었기에?’ 하는 의심이 생길 겁니다. 그 답은 비문 속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짚어 봅니다. 우선 비문을 시작하는 대목에 지광국사의 법호가 길게 나열됩니다. 지광국사는 고려 초기의 여섯 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종의 시대에 태어나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까지 다섯 왕으로부터 지극한 귀의를 받았습니다. 왕들은 많은 법호(법칭)를 증정하며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법호는 강진홍도(講眞弘道) 명료돈오(明了頓悟) 계정고묘유각(戒正高妙應覺) 탐현도원(探玄道源) 통제연오법동(通濟淵奧法棟) 구행도성도수(具行了性道首) 용승(融煙) 랑철(朗徹) 등 8개가 열거 되고 있습니다. 법호들은 선승으로 교화에 정통한 학승으로 계율을 엄격히 지키

자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장(老莊)의 개설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스님은 아무렇게나 말을 하여도 곧 훌륭한 문장을 이루게 되었으니, 해거(憲據) 북송 때 법패에 능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스님의 문장력도 흔히 백산 하였고...’ ‘아주 많은 서적을 독파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혜초 스님을 능가하였다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 밖에도 지광국사의 문장은 이태백의 시를 능가했다 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입적한 일에 대해서는 ‘사리불이 입적함에 당하여 무색계의 제천(諸天)이 흘린 눈물이 마치 봄에 내리는 이슬비와 같았으니, 지금 국사께서 시화(示化)하던 오늘 밤에 내린 비인들 어찌 제천이 흘린 눈물이 아니겠는가’라고 극찬해 마지않았습니다. 또 지광국사가 입적하기 전날 밤에 등불만 한 두 개의 별이 나타났고 두 줄기의 큰 무지개가 샅는데 마치 두 마리의 적룡(赤龍)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 같았다

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광국사가 입적하자 왕(문종)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장례에 대한 각종 지원을 했습니다. 시호와 탑호를 내린 것은 물론이고 특사를 보내 장례를 감호하게 했으며 차와 향 기름 등을 하사하며 원주 왕고에 있는 양곡으로 필요한 경비에 조달조류 지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이 비문에 낱말로 기록된 것은 지광국사의 도력과 당시 사람들의 존경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불교에 대한 왕실과 백성들의 귀의심과 존경 또한 시대를 덮은 정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는 건국 때부터 불교를 국교로 숭상했습니다.

## 일제 때 반출됐다 돌아와 '객지생활' 현묘탑 화려함의 극치 다섯 왕 귀의 받으며 시대를 이끌었던 법력 촘촘이 새겨

는 지계승으로 국사의 품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적 후에 왕이 내린 시호 지광(智光)이 따라 불고 탑호 현묘지탑(玄妙之塔)이 붙었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또 하나 짚어 볼 것은 비문의 내용에서 지광국사를 부처님 아래 여러 성인에 비유한 대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으로 지어진 비문이고 당대 스승의 생애를 기록한 글인 만큼 다소 과장했다 치더라도 어색함이 없이 국사의 행화를 전술하고 있습니다. ‘태학할 때 옥허 왕소(玉都 王孫) 중국 진나라 때의 호연지기가 강했던 인물의 경우와 같았다’ ‘공자와 맹



탑비와 부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 등이 법천사의 옛 규모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불교는 세속화되어 전답을 지나치게 소유하고 심지어 노비까지 부리며 권력화 되어 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경제해야 할 것은 권력과 재물입니다. 한 시대의 스승으로 존경 받는 수행자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주변에 높고 먹는 가짜수행자들이 들끓는 것도 증생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광국사처럼 여러 왕으로부터 지극한 존경을 받는 스승이 있는 동안 승단의 다른 수행자들도 간담없는 수행으로 국사의 법함을 체득하고 유지했다면 그 시대는 극락의 시대라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식과 가짜 수행자가 공존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물질문명의 시절인연을 허둥지둥 따라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돌아볼 때입니다.

경복궁 앞 돌. 고궁박물관 뒤편은 한적한 공간입니다. 광화문 복원공사가 한창이고 커 큰 은행나무에서는 새 잎이 돋나려 분주합니다. 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1호).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부도는 지금 객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박명(佳人薄命)이라 했던가? 크기(높이 6.1m)로 보나 화려한 조각으로 보나 가히 최고의 걸작으로 꼽힐만한 이 부도는 일제강점기 때 오사카까지 반출됐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탑비가 있는 법천사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만 경복궁 앞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자리였고 해방 이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습니다. 함께 객지생활을 하던 거둔사지 원공국사 부도나 흥법사지 진공대사 부도 등은 다시 용산에 세워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광국사현묘탑만 오래전에 떠났다가 반드시 돌아올 그 누구를 기다리는 모양새로 적요한 뜰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묘탑은 다른 부도와 달리 탑 형식으로 세워졌습니다. 엄연한 부도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탑(불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층탑이라는 형식이 불탑이 아님을 알게 하는데, 어느 한구석도 빈틈을 주지 않고 오밀조밀하게 문양을 새겨 넣은 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지대석과 하대석 네 모퉁이에 용의 발톱 같은 것이 굽적하게 놓여 있고 페르시아 풍의 주름커튼이 묘사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예사로운 정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몸돌 아래까지를 무려 7층으로 떠받친 절구 형태와 다소 이국적인 문양을 강조하며 몸돌을 감싼 조각들, 화려한 육개석과 보주도 선명한 문양을 그대로 지닌 채 하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람의 솜씨인가 의심하게 하는 걸작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현묘탑은 날이면 날마다 무심하게 지나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원주 법천사터 그 아름다운 언덕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는설위원)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승1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6권 출간! 입제, 목주 선사의 주옥 같은 공안이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 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www.zenparadise.com

정택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012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사찰(전문시공),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부처님 오신날**

**천수천안 점안식 기도**

경기민요 문화제 임소희 성지스님 산사음악회

■일시 : 2010년 5월 21일 (음력 4월 초파일) 오전 10시부터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649-37번지 (경춘고속도로 서종 IC 우회전 500M)

서종 예봉사 031)773-7899

구달 법주 합장

**GOLD Bulgama**

**황금빛 찹쌀로 건강100세!**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찹쌀” 불가마 골드의 온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찹쌀 문화를 선사합니다.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꾸준온열 품 · 찹쌀 체온 ·
- 삼마준바이오, 토르마린, 비장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 금 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파동요법, 유헤과 중화 기능 ·

본 제품에 제공되는 복대 및 온열주머니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편리하게 찹쌀하십시오.

(주)동성헬빙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